

2015년 1월 후원금 사용 보고서

1. 2015년 1월 후원금 개요

2015년 1월 후원금은 총 3,880,000원으로 후원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10개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구분	단체명	1월 총 후원금
아동	상록보육원	925,000원
환경	푸른아시아	790,000원
질병	한국소아암재단	500,000원
노인	행복창조	465,000원
저소득지역	꿈이있는푸른학교	200,000원
	흑석지역아동센터	200,000원
교육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200,000원
	아름다운학교	200,000원
여성	낙태반대연합(Pro-Life)	200,000원
장애	안산평화의집	200,000원

2. 신규후원기관 “안산평화의집”

사회에서 소외 받는 정신지체 장애인 관련 시설 “안산평화의집”이 새로운 협약 시설로 클로버가든에서 모임을 시작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3. 안산평화의집 사랑의 쌀 전달 행사(2월 13일)

2015년 설을 맞이하여 안산평화의집에 사랑의 쌀 100kg가 전달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서용상 차장님 외 3분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셔서, 쌀 전달식 뿐만 아니라 오전 동안 생활관 전체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기부해 주신 소중한 쌀은 안산평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50명의 중식 지원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안산평화의집은 1983년 설립되어 소외 당하고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주거공간,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정서와 건강한 몸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계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만연니 은숙씨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로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숙씨는 평생을 누워지내고 있습니다. 안산평화의집은 이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지체장애인들이 함께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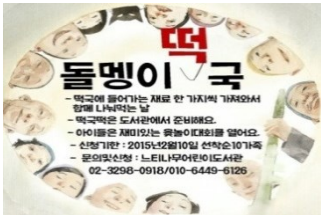
안산평화의집에서 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평화의집에 입소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가족과 사회에 버림받아 오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버거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환영해주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산평화의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평화의집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장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후원자 명단

릭실코리아 (이성철)



지하에 위치한 도서관이지만 후원자 분들의 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하게 겨울방학 맞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1:1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및 체험놀이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는 설날맞이 떡국을 나눠먹는 <둘맹이 떡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당동에는 명절에도 일을 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모여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전기이월금

0 원

1월 총 후원금

200,000 원

후원금 모집활동비*

14,905 원

당월 사용금액

난방비 지원
(총액 568,860원 중 36% 총당)

185,095 원

차기이월금

0 원

* 카탈로그 제작/인쇄 및 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

후원자 명단

릭실코리아 (이성철 심광수 김재갑 한성준 서성진 최성호) 대일산업(주) (강동현 강삼우 강은지)

